

16년 역사 전남대 로스쿨 '1호 모녀 동문' 탄생

서울 출신 권남인씨, 2009년 47세 때 합격... 변호사 활동 중 올해 졸업 딸 신주현씨 "법률적 가치 잘 지키는 법조인 되겠다"

지난 26일 제14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16년 역사를 가진 전남대 로스쿨에서 이날 모녀 동문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1회 졸업생인 어머니 권남인 씨와 딸 신주현(32)씨다. 학교 선배인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주현씨는 "엄마와 같은 로스쿨을 졸업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엄마처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주현 씨가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건 어머니 남인 씨의 영향이 컸다.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법률 봉사를 하던 남인 씨는 자신이 도움을 줬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편지와 선물을 받았다. "잘 해결돼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게 된 주현 씨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바로 로스쿨 시험을 준비, 어머니가 다녔던 학교이자 인권 관련 법이 특화된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서울 법무법인 영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남인 씨는 전업주부로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다 전남대 로스쿨이 처음 생긴 2009년 도전, 합격했다. 당시 47살로 합격자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딸이 로스쿨을 지원할 때 전남대를 적극 추천했어요. 첫 해에 들어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따뜻하게 대해줬던 광주 친구들과 덕분에 좋은 기억이 가득해요. 광주라는 도시와 전남대 로스쿨은 정말 믿고 보내는 곳이었죠. 전남대 로스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녀 동문이 나오기 쉽지 않은 데 딸과 선배가 돼 뿌듯해요. 딸이 좋은 학교를 잘 마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두 사람 모두 연고 없는 광주에 홀로 내려와 공부했다. 지난 3년간의 학교 생활이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한 주현씨에게도 광주는 제2의 고향이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혼자 오래 지낸 건 처음이었어요. 광주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느긋하게 돌아볼

곳이 많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특히 학교 조경이 정말 예뻐서 공부하기 힘들 때 산책하며 기분전환을 했습니다."

주현씨는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건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었다. 하지만 학교발전 기여자 명패에 올라간 어머니 이름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공부할 힘을 얻기도 했다. 그는 "엄마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며 "지향적인 동시에 넘고 싶은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주현 씨는 대학교 때 복수전공한 문화융합을 토대로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 노동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 1회 졸업생 어머니 권남인 씨와 14회 딸 신주현(오른쪽)씨.

"법률 봉사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엄마를 보며 변호사를 꿈꿨던 그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사회정의, 균형감 등 법률적 가치를 잘 지키고 사회적 약자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양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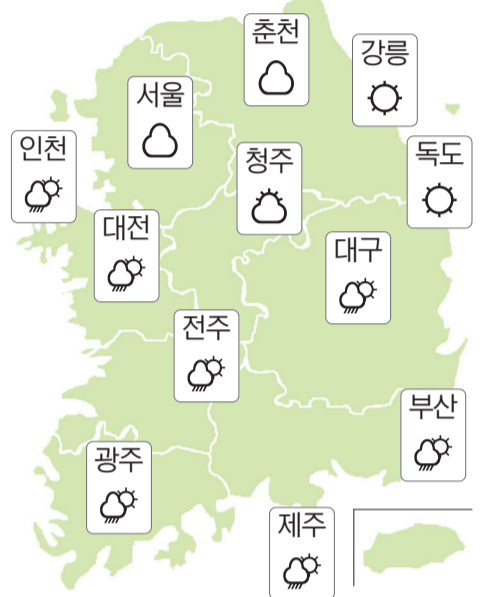
해돋이	07:04	달뜨기	07:12
해질	18:27	달짐	18:45

촉촉한 봄비

기온 올라 포근하고 오전까지 5mm 비 오겠다.

광주 비온뒤값	5/15	보성 비온뒤값	2/15
목포 비온뒤값	4/10	순천 비온뒤값	4/16
여수 비온뒤값	6/12	영광 비온뒤값	3/12
나주 비온뒤값	4/15	진도 비온뒤값	5/12
완도 비온뒤값	5/13	전주 비온뒤값	5/13
구례 비온뒤값	4/16	군산 비온뒤값	2/12
강진 비온뒤값	4/15	남원 비온뒤값	2/14
해남 비온뒤값	4/14	축산도 비온뒤값	6/12
장성 비온뒤값	3/15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0.5~1.0	0.5~1.0
	면바다(북)	0.5~1.5	0.5~1.5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1.0~2.0	0.5~1.5	0.5~1.5
	면바다(서)	0.5~1.5	0.5~1.5	0.5~1.5	0.5~1.5
	면바다(동)	0.5~1.5	0.5~1.5	0.5~1.5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5	02:09
	20:07	14:49
여수	03:08	09:42
	15:42	21:48

◇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 주간 날씨

3/1(토)	2(일)	3(월)
☁	☁	☁
5/14	10/17	7/9
4(화)	5(수)	6(목)
☁	☁	☁
3/7	2/8	0/9



아시아문화전당-예술경영지원센터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26일 ACC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국제 공연예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 문화향유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 협력사업 공동기획 및 운영, 협력 창·제작 사업의 홍보 및 작품 유통 활

성화 등 국제 공연예술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기로 했다.

국제 네트워크에 특화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아시아문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제작을 추진하는 ACC, 두 기관의 장점을 결합해 국내외 활발한 예술창작과 교류를 가속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공하나협동조합 업무 협약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과 공하나협동조합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27일 오후 남구 방림2동 시니어센터에서 진행했다.

공하나협동조합은 내년까지 총 2년간 남구청으로부터 시니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두 기관은 성평등 교육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성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교도소-광주하트치과의원 협약



광주교도소(소장 박삼재)는 지난 26일 광주하트치과의원(대표원장 홍영준)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도소 제공>

양희석 전남대 명예교수 '행인학당 장자 외편' 강의

동양학자 양희석(사진) 전남대 명예교수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행인학당 노장강좌 '장자(莊子) 외편'을 강의한다.

전남대중국인문연구소 주최, 호남대 공자아카데미·행인학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12시 광주 서구 상촌동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상무대로 971) 2층 6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재는 양 교수가 2023년 펴낸 '장자 외편-젊은 철인의 길찾기'(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이며, 수강료(간식비·운영비 포함)는 10만원이다. 오는 3월 8일에 강의의

듣기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한편 한국국학진흥회 회장과 중국인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양희석 교수는 지난 2022년 정년 퇴임 이후 시민들에게 '노자'와 '장자' 등 동양고전을 강독하는 '행인학당 노장강좌'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8일(음 2월 1일 戊辰)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광주 노인지도자대학 제38기생 모집=2월 28일까지 65세 이상 남녀 80명(선착순) 모집, 수업료·교재 무료, 입학일 3월 19일. (사)대한노인회 광주지연협회 062-652-7374.

子	36년생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48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취을 것이다. 60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지도 모르는 날이다. 72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84년생 고생은 없지만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다. 96년생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79
丑	37년생 의외의 것이 눈에 띄겠지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었다. 49년생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다. 61년생 들고 접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73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다. 85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97년생 다목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0, 94
寅	38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 하자. 50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62년생 과거의 잣대로 재려한다면 모순이다. 74년생 소강상태 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6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98년생 사소한 흥결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03, 95
卯	39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51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가지 않는 것이 낫다. 63년생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75년생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인다. 87년생 자연스럽고 실감 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99년생 승세로 돌아간다. 행운의 숫자 : 07, 59

辰	40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52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만 대처 방안도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64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 76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88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00년생 종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0, 90
巳	41년생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는 지혜가 절실할 필요하다. 53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니라. 65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하리라. 77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잘 살펴보자. 89년생 마음은 배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9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02년생 취하면 즉시 임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55
午	42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54년생 우연함이 아니라 누적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헤안이 떠오를 것이다. 78년생 혀는 몸을 배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9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02년생 취하면 즉시 임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74
未	43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55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67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79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91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03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6, 89

申	44년생 부족하던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56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미리 행거 돌 필요는 없다. 68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0년생 오랫동안 갈 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92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04년생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14, 67
酉	45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으리라. 57년생 몇 차례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므로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81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93년생 길한 기운이 모이고 있으니 순조로울 것이다. 05년생 음악의 조화가 이채롭다. 행운의 숫자 : 31, 93
戌	46년생 과거사가 현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58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70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2년생 신중히 진행한다면 성과는 예상했던 바보다 크다. 94년생 허심탄회한 토론이 물꼬를 트이게 하리라. 06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3, 58
亥	47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5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해야만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83년생 디더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도다. 95년생 스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07년생 희성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라. 행운의 숫자 : 05, 76

☎ 010-9790-8237